

〈서평〉

삶을 사람, 공감, 소통, 성찰, 고독으로 채우다 류시화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신 연 옥 (우천초등학교 특수교사)

나를 만나는 시간! 나는 이 시간을 기다린다. 주말이 되면 살고 있는 아파트 뒤 편에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산에 오른다. 나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 3월 2일,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첫 발자국을 뗐다. 처음에는 운동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산에 다녀볼까라는 목적의식이 강한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이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지금까지 내가 온전히 이 시간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생각'때문이었다.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자식으로서, 엄마로서, 교사로서, 동료로서 처해진 상황과 맺는 관계 속의 나의 말과 행동, 생각 등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니까', '나는 괜찮아'.....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즐기면서 난 산에 올랐다. 어떤 날은 오로지 땅만 보고 걸었다. 또 어떤 날은 하나의 생각에 빠져 내려올 때까지 그 생각만 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었다.

산에 오르면서 자연의 변화에 감탄하며 또 고마워하며 자연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게 되었다. 비탈길 잡초하나 없는 매마른 자갈길에 소나무는 뿌리를 거의 다 드러내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난 스스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지는 일 등에서 나를 세우고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떠올랐고, 모든 것이 내가 좋든 싫든,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기로 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듯 있었고 난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했고 그 시간 속에서 깊어져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뻐다. 늘 언제나 나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의 글귀를 접하게 되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이 책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작가는 류시화! 난 당장 이 작가의 책이 궁금해졌다. 바로 그 길로 도서관에 가서 류시화의 모든 책을 검색해 빌려보았다. 그 중 지금의 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이 공감되는 내용의 책은 <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이었다. 이 책들은 일상적인 내용을 작가 특유의 섬세함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시선 안에서 발견되는 특별함이 묻어나는 내용들이었다. 삶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천천히 사소하게 접근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책의 첫 장에는 '퀘렌시아-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아서'의 내용으로 시작한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좋아하는 공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이와 만남, 이 모두가 우리 삶에 퀘렌시아의 역할을 한다.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 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 때가 바로 자신의 퀘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나의 퀘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p.12-17).”

첫 장부터 현재의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을 소화하며 나를 열심히 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만족이 내 만족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상대방의 알아줌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다. 이 같은 마음을 달래고 숨기려했지만 어느 순간 고개를 내밀었다. 난 산을 오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재 배우는 공부에 집중하면서 이런 내 안의 불편함, 서운함과 친해지려, 받아들여려 계속 생각연습을 하고 있는 듯하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또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작가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어 기운을 되찾아 삶으로 다시 뛰어들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닌 목적지가 나에게 부여하는 여정이 그 여정이 나를 허물고 새로운 나를 창조한다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여정의 매 순간을 즐기고 감동했는가. 삶의 향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간 중간에 피어 있는 들꽃 같은 얼굴들과 매순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벼락에 핀 꽃을 보는 마음의 여유와 관심, 그곳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쉬어 감이 그 여정을 풍요롭게 만든다(p.32, 짐 코벳 이야기-과정이 즐거웠는가).”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삶이 우리를 우회로로 데려가고, 그 우회로가 뜻밖의 선물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안겨 준다. 먼 길을 돌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것이 여행의 신비이고 삶의 이야기이다. 방황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길은 과정의 즐거움과 이야기를 놓친다. 많은 길을 돌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우회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p.80, 그대에게 가는 먼 길-신은 길을 보여 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투르니에의 설명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본래부터 천연색이 아니라 흑백,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무채색이다. 그 현실에 색깔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고 예찬이다. 서로 예찬하지 않으면 인간 역시 불품없는 존재이다. 예찬하는 마음은 모든 돌들을 보석으로 만든다. 부자는 누구인가? 많이 감동하는 사람이다.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p.58, 예찬-현실에 색을 입히는 법).

“우리는 보고 느끼기 위해 태어났다. 그 밖에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에 몰입하고 감동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왔으며, 그 몰입과 감동이 사람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 나가게 하는 힘이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대니얼 길버트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 대한 집중도’라고 말했다(p.68,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프루스트의 장미)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만 즐기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도 수용하고 이를 즐기려 노력한다. 시련과 고난도 나에게 온 의미가 있을 것이니. 이를 해결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사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의 전환! 지금 이 순간만을 보지 않고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를 보려고 한다. 완성된 그림의 한 부분으로. 그림 쉬이 넘길 수 있으니. 그림 마음이 편해지고 그 와중에 여유가 생긴다. 이 또한 내가 변화하는 과정이라며 되새기면서. 또한 되도록 주변을 열린 시각으로 '그릴 수 있어'라는 말을 자주하며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한다. 그러면 화가 나다가도 금세 풀릴 때가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느껴지면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게 된 적도 있다. 별거 같지 않지만 대단한 노력의 결실이다. 자신에게 겸손해야 상대방을 시기와 질투 없이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으로 채워지고 이는 나의 눈과 마음으로 채워지기에. 늘 순간순간 깊이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한다. 한번은 회식자리에서 건배사를 한 적 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살자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배우면서 재미있게 살자고. 내가 웃고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기에. 삶에 대한 나의 이런 진지함과 노력들이 쌓이면 내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독여본다. 다음 글귀처럼.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의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정답을(p.95, 나의 노래는-잘못 산 인생은 없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만약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길이 맞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머리로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류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역시 그가 경험한 일화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다 나쁜 것은 없다고. 이 책은 화가, 미로코 마치코의 삽화와 함께 각 장을 시작한다. 작가는 대학시설 화장실 없는 월세방에 살면서 근처 대학병원 화장실을 이용했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옷에 실수를 하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훗날 이렇게 웃으며 추억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고난과

시련들을 별거 아닌 것인 마냥 초월해버리는 이 정신력, 배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책을 읽는 내내 신기하고 한 편으로는 부러웠다. 나 역시 현재 주어진 역할의 무게가 버거워 한때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다. 자식으로서, 엄마로서, 배우자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며느리로서. 일주일동안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 주 4회(화, 목, 금, 토)는 아이들을 학원과 성당으로 픽업하고 주중 2일(월,수)은 대학원 수업을 받고. 정말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보내다가 문득 '어느 일정도 겹치지 않고 딱 떨어지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불행 중 다행인 걸까? 요즘 말로 웃꿨다. 그래도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인건가. 결국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생각들이 내 삶을 매장과 파종의 의미로 나누고 있는 듯하였다.

“매장과 '파종'의 차이는 있다고 믿는다. 생의 한때에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층에 파종된 것이다. 청각과 후각을 키우고 저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려 계절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고 삶에 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파종을 받아들인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의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는가. 생각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마음은 한 개의 해답을 찾으면 금방 천 개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p. 26,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다(p.98,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그래서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의 대사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이었는데, 이 질문을 지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적어도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의 '나는 누구인가-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의 내용처럼 우리 자신은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모습들의 종합이라서 나는 매 순간 다른 나일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는지 작가는 묻고 있다. 나 스스로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그것들은

나 스스로 투명해지려 노력해야 보이는 것들로 내 마음에 뿌연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내 안의 신과 당신 안의 신이, 내 안의 불과 당신 안의 불이 만날 수 있다. 내 안의 절대 고요와 당신 안의 절대 고요가(p.63,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여뀌)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한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p. 119, 우리는 다 같다-공감과 연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한다고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과 동의어이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이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나의 판단과 편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선부른 판단으로 그 누군가를 잃어하며,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게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인간은 다른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비밀과 고독을 가지고 있기에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들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자신의 영혼을 모두 황폐하게 만든다. 그것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 삶의 방식에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p.206, 나는 왜 너가 아닌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의 책을 통해서 본 류시화 작가는, 그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경험을 진정성있게 성찰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감정과 생각, 이야기들을 진실한 문장으로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다. 자신의 사색과 감정을 화려한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담백하게 담아내어 독자로 하여금 쉽게 다가오도록 자신만의 내면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작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되면서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문득 사람은 우주 같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난 그 사람의 현재를 만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과거와 그 과거 속 수많은 생각들의 세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에.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주 대 우주가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오로지 나로 보여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나

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라는 존재와 다른 사람이 공감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하고 이는 나의 의지를 반영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속되겠지만 관계에 지치고 에너지가 소진되면 나만의 휴식처로 돌아와 잠시 내려놓고 쉬하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고독을 통해 다시 기운을 내게 될 것이다. 삶은 이렇게 사람, 공감, 소통, 성찰, 고독으로 채워지는 것 같다. 이를 위해 나의 휴식처에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와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내 마음의 쉽이 필요할 때 이 책을 꺼내어 읽고 내 마음을 토닥토닥 쓰다듬어줘야겠다. 이에 대한 나의 확신을 다음 내용을 인용하며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한 편의 「오디세이아」이다. 그 대서사시의 완성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각자의 이타카 여행이어야 한다. 그 길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우리의 순례이다. 당신의 이타카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이타카로 가는 길 어디쯤에 있는가? 애꾸눈 괴물의 동굴에서 고통 받고 있는가, 바다의 신의 격랑에 침몰하고 있는가? 아니면 페니키아의 시장에서 호사스러운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는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길 위가 바로 이타카임을 이미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제대로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너의 최종 목표이니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는 말라
여행은 여러 해 계속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늙어서 그 섬에 도착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너는 길에서 얻은 모든 것들로 이미 풍요로워져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리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의 p.267, 이타카- 네가 걸어온 길이 너의 삶이 될지니 중에서)